HIV/AIDS

(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/후천성면역 결핍증후군 A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)

세계 에이즈의 날 World AIDS Day

- 매년 12월 1일은 HIV/AIDS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, 1988년부터 시작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.
- 붉은 리본은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지하며, 그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에이즈 상징물로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표현입니다.
- 2017년에는 'Right to health (건강할 권리)'라는 주제와 'Everybody counts (모두가 중요합니다!)'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36.7백만 HIV 감염인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질병개요

-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(Human Immunodeficiency Virus, HIV)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.
- HIV는 잠복기가 평균 10년으로 매우 긴 편이고, 잠복기 동안 전파가 가능합니다.
-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잠복기가 지나 여러 기회 감염(폐렴이나 뇌수막염 등)에 걸렸을 때 비로소 AIDS(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, 후천성 면역 결핍증)이라는 병명이 붙게 됩니다.

세계 HIV/AIDS 현황

-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제의 보급으로 HIV 신규감염 및 AIDS 환자의 사망은 감소하였으며 생존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2016년 신규 감염자 180만명으로 2010년 이후 11%가 감소하였으며, 사망자는 전년 대비 50만명이 감소한 100만명으로 3,670만명이 생존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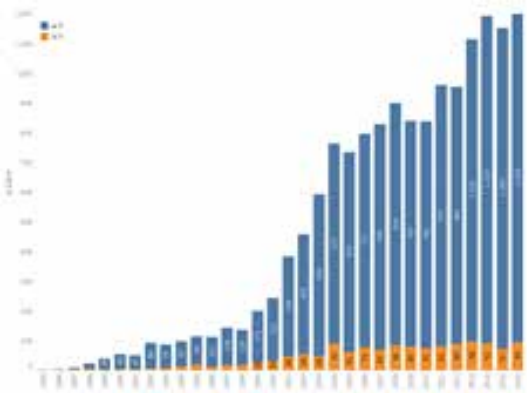
세계 HIV 생존 감염자 분포

출처 : WHO

국내 HIV/AIDS 현황

- 1985년 국내 첫 HIV 감염 보고 이후, 최근에는 연간 1천명 수준으로 신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2016년 한 해 1,199명이 신규로 신고 되었으며, 이는 2015년 1,152명에 비해 4% 증가한 수준입니다.
- 성별로는 남자 1,105명, 여자 94명으로 11.8:1의 성비를 보였습니다.
- 감염인의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1,062명으로 88.6%를 차지하였으며, 내국인의 경우 남자 1,002명, 여자 60명으로 16.7:1의 성비를 보였습니다.
- 신규감염인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국내 HIV 신규감염자 성별 발생현황



출처 : 질병관리본부

우리나라 HIV/AIDS 주요 정책 변화

- **1985년 국내 첫 사례 발견**
- **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정**
- **1989년 HIV 무료 익명검사제도 실시**
- **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변경 신고**
- **2008년 익명신고, 감염인 명부 작성 및 보고 의무 폐지**

HIV/AIDS 바로 알기

Q: HIV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감염 되지 않는다?
A: 음식을 같이 먹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.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어서 침과 함께 바이러스가 묻어나와 감염될 위험성은 없습니다.

Q: HIV/AIDS 언제 검사해야 하나요?
A: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2주가 지나서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. 에이즈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.

Q: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나요?
A: 현재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의 증식을 억제하여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.

출처 : 질병관리본부